<루르드의 성모>

(프랑스)

1.발현

루르드의성모님은교황비오9세가1854년12월8일 '복되는 동정 마리아의 원죄없으신 잉태' 를 믿을 교리로 선포한지 3년 2개월 되는 해인 1858년2월11일 프랑스의 루르드라는 동네의 14살 소녀(이름:성녀 벨라뎃다)에게 총 18번 (1858년 2월11일 부터 7월 16일까지)을 발현하셨다. 당시 벨라뎃다는 동생들과 마사비엘이라는 동굴에 땔감에 쓸 나무를 구하러 갔었는데 마사비엘 동굴에 가니 동굴 안에 가슴에는 푸른띠를 두르고, 맨발의 발위에는 노란 장미가 피어 있으며 묵주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리따운 부인이 있었다. 벨라뎃다는 이를 보고 가슴에 성호경을 그으며 바라보았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그녀는 동생들과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가족들은 벨라뎃다가 천식으로 인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동생이 자신의언니 (벨라뎃다)가 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동생과 그의 친구들은 언니와 함께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사비엘 동굴을 찾아갔다. 벨라뎃다는 동굴 앞에서 묵주기도를 하며 또다시 그 부인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라고 생각하며 성수를 뿌리며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고 루르드 본당 신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벨라뎃다는 자신이 본것을 솔찍히 말하였으나 신부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렸다.

그후 벨라뎃다는 그 동굴을 자주 찾았고 부인은 계속 발현을 하자 이 소문이 여러 곳으로 퍼져 많은 이들이 동굴을 찾게 되었는데 벨라뎃다는 그분이 성모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모두가 동굴에 발현하는 이를 성모님이라고 주장하여 벨라뎃다는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하였다. 벨라뎃다에게 그 부인이 아홉 번 째 발현 때에 그 부인은 동굴안의 이름 모를 풀을 먹게 하며 동굴 한켠의 부분을 깊게 파서 그 진흙을 얼굴에 바르게 하며 파인 자리의 웅덩이의 물로 얼굴을 씻게 하였다. 벨라뎃다는 그 모든 것을 그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모두가 벨라뎃다를 보고 미쳤다고 수근거렸다. 그 후 그 웅덩이의 물을 먹고, 또 씻은 많은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병이 완쾌되고 다리를 저는 이가 똑바로 걷는 등 여러 기적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마사비엘 동굴을 찾게 되었다. 그 부인의 마지막 발현 시에 그 부인의 이름을 벨라뎃다가 물어보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원되없이 잉태된자이다'라고 하심으로써 성모님의 발현임이 확정되었다. 성모님은 발현 시에 회개, 그리고 많은 기도와 보속을 벨라뎃다에게 부탁하셨다. 또한 이 자리에 성당을 세울 것을 부탁 하셨다. 그후 발현이 있었던 동굴위에 로사리오 대성당, 원되 없으신 성모대성당, 비오10세 지하 대성당과 여러 피정의 집 외에 기적수와 많은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발길이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 발현배경

19세기 들어 극심해진 자유주의 사상등의 영향으로 지식층의 교회에 대한 불신고조된 상태

3. 발현의 목적 및 메시지

① "여기에 성당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사제에게 말하여라"

②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라"

③ 벨라뎃따 개인에게는 "나는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이다" 하고 약속하심

4. 마리아 벨라뎃따 수비루의 편지에서

여인은 제게 말씀 하셨습니다.

어느 날 두 여자 아이들과 함께 가브 강변에 땔 나무를 주으러 갔을 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장 쪽을 바라보았더니 나무들이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굴 쪽을 바라보니까 파란띠에 흰옷을 입고 있는 한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양쪽 발등에는 노란 장미꽃이 꽂혀 있었고 그의 묵주도 같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을 바라보았을 때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 눈을 부볐습니다. 그리고는 묵주가 든 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십자 성호를 긋고 싶었으나 이마에다 손을 올릴 수가 없었고 손은 이내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인은 자신이 성호를 그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으나 마침내 십자 성호를 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주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인은 손가락 사이로 묵주알을 굴렸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묵주의 기도를 끝마치자 환시는 사라졌습니다.

환시가 사라지자 두 여자 아이들에게 무얼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보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말해 줄게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흰옷을 입은 한 부인을 보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나보고 거기에 되돌아가지 말라고 간청했으나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떤 내적인 힘에 이끌리는 것을 느끼면서 일요일날 거기에 다시 갔습니다.

그 부인은 제가 세 번째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던 날 나를 보고 보름동안 자기에게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니까 사제들에게 가서 거기에다 소 성당을 짓도록 청하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은 제게 샘에서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둘러보아도 샘이 없기에 저는 가브 강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게 아니라면서 손가락으로 샘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약간의 더러운 물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넣었지만 손으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땅을 후비었더니 마침내 마실 수 있는 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세 번은 버리고 네 번째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환시가 사라지고 저는 거기를 떠나왔습니다.그다음 보름동안 거기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부인은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제게 나타나 사제들에게 소성당을 짓도록 청해달라고 다시 부탁했고 저더러 그 샘에서 몸을 씻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몇번이나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부인은 제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은 팔을 펼치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는 자기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보름동안 부인은 제게 또한 세 가지 비밀을 계시하셨고 절대로 누설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그 비밀을 충실히 간직해왔습니다.

5. 결과

사람들의 헌금으로 성모님의 뜻대로 그곳에 건립된 화려한 성당은 1876년 7월2일 파리의 대주교에 의해 축성 되었다.

7월 16일 최후의 발현이 있은 후 구 교구의 주교, 신학자,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발현의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신학적, 과학적인 조사를 하도록 명했는데, 그 결론은 각 위원 모두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일치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세상에 알려짐에 따라 루르드를 순례하는 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었다. 영육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또한 그 영수(靈水)의 효능으로 병을 고친자의 수도 그 수를 모를 정도로 다수에 달했다.